

Growing Green Packaging in the U.K.

영국에 부는 친환경포장 바람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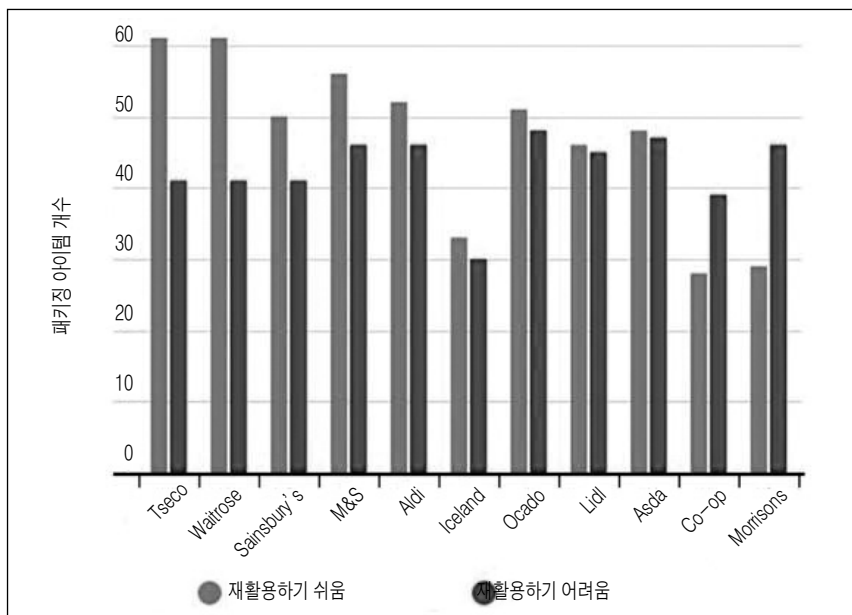
I. 현지 동향

1. 포장지 및 포장용기의 재활용 중요성 증가

영국의 소비자 잡지 'Which?'에 따르면 슈퍼마켓의 자사 식료품(Own-brand groceries) 포장지 기준 전체의 52%만이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한다.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분석 결과, 모리슨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테스코와 웨이트로즈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Which?'는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슈퍼마켓

(그림 1) 슈퍼마켓 자사 제품별 포장지 재활용 가능 상품 개수



[자료 : Which?]

이 포장지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ich?'는 재활용 용이성 뿐만 아니라 재활용 표시 라벨링이 얼마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도 실행했다. 그 결과 슈퍼마켓 평균

[표 1] Which?가 구분한 난이도별 재활용

난이도	예
재활용 쉬움	유리, 깨끗한 종이, 통조림, 플라스틱 병 또는 플라스틱 바구니*
지정장소에서 재활용 가능	음료 종이케이스, 비닐봉지(Plastic bags)
재활용 어려움	플라스틱 비닐, 표면처리가 된 종이박스, 과자 봉지와 같은 신축성이 없는 플라스틱

주* : 과일이나 채소, 음식을 담아 파는 바구니

[자료 : Which?]

[사진 1] 테스코와 모리슨의 자사 제품과 패키징



테스코의 자사 제품과 패키징

테스코의 자사 제품과 패키징

테스코의 자사 제품과 패키징

테스코의 자사 제품과 패키징

[자료 : Which?(원자료 : JuxtaposeJS)]

[사진 2] 재활용 라벨의 좋은 예와 나쁜 예



재활용 라벨의 좋은 예

재활용 라벨의 나쁜 예

[자료 : Which?]

42%의 상품이 부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나 재활용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① 재활용 라벨의 좋은 예

조사를 시행한 11개 슈퍼마켓 중 아스다(Asda)의 라자냐 즉석식품의 경우 제품 부분의 재활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고,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 돼야 한다는 표시가 분명하게 전달된다.

② 재활용 라벨의 나쁜 예

반대로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아이슬란드(Iceland)의 파스타 제품의 경우 충분한 설명이 첨부돼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구분법이 아닌 것으로 'Which?'는 설명했다.

이에 'Which?'는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슈퍼마켓이 할 수 있는 5가지를 제안했다.

- 1. 재활용 가능 여부 라벨링의 명확성 향상
- 2.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 3. 즉석식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PET 플라스틱 사용 금지
- 4. 다 쓴 비닐봉지를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5.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날개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제공

[자료 : Which?]

뿐만 아니라 'Which?'는 영국 정부에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같은 제도를 사용, 이로써 재활용을 늘리고 모든 소비자가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익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2. 스코틀랜드 빈병 보증금 반환 시범사업 시행

스코틀랜드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 캔, 유리병을 반환 시 20p(약 300원)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2021년 3월 이전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50ml 이상, 3L 이하의 모든 음료수 병과 보관용기(containers)를 포함하며 스코틀랜드 지역 전체에 해당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12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음료수를 구매할 때 20p 덧붙여진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용기를 소매점에 돌려줄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report 2017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연간 130억 개의 플라스틱 병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중 57%인 75억 개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II. 영국 내 플라스틱 프리 트렌드

1. 플라스틱 프리 친환경 판매

① Bulk Market

런던 해크니(Hackney)구에 위치한 Bulk Market은 과일 및 채소 포장을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플라스틱 포장이 존재하지 않는 런던 내 첫 번째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가게이다. 설립자인 인그리드 칼디로니(Ingrid Caldironi)는 2년 전 팝업 스토어로 시작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현재 가게를 설립했다.

Bulk Market은 채소, 과일, 빵, 견과류, 파스타, 오일, 시리얼, 유제품, 위생용품, 동물사료, 화장품, 청소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며, 상품 판매뿐만 아닌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퇴비 만들기 제도(Community composting scheme)’,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수거하는 ‘테라사이클 재활용(Terracycle recycling scheme)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테라사이클(Terracycle UK)은 재생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위한 폐기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재활용 회사이다.

[사진 3] 런던 해크니(Hackney)구에 위치한 Bulk Market의 모습



[자료 : KOTRA 런던 무역관 자체 촬영]

② Waitrose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Waitrose는 6월 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용기를 가져오거나 보증금 5파운드를 지급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패키지-프리(Packaging-free)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옥스퍼드에 위치한 한 매장에 서만 해당되며 과일, 채소, 꽃, 식물, 곡물, 파스타, 시리얼 등 여러 가지 제품을 플라스틱 사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 용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가격보다 15%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Waitrose는 설명했다.

Waitrose의 사회적 책임자인 토르 해리스(Tor Harris)는 “증가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발

[사진 5] 웨이트로즈의 패키지 시범사업 모습



[자료 :BBC]

맞춰 슈퍼마켓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소비자의 품목별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인 모리슨, 세인즈버리, 웨이트로즈, 테스코 내에 위치한 정육점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매할 때에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포장산업에 다가온 친환경 물결

① 생분해성 너겟 모양 완충재

영국의 채식주의 상품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할 때 생분해성 너겟 모양 완충재를 이용해 포장하고 있다. 이 완충재는 식물의 전분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상품을 배달 받은 후 소비자는 퇴비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흐르는 물에 녹여 보내거나 목욕 시 욕조에 넣어 색다른 효과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러쉬의 소비자는 “러쉬 택배를 뜯어보는 순간, 친환경 완충재를 보게 돼서 너무나 기뻐고 다른 기업들도 어서 빨리 비슷한 변화가 있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② 골판지 포장지

[사진 5] 생분해성 에어팩



[자료 : Greenlight packaging]

흔히 ‘뽁뽁이’라고 말하는 버블 랩은 깨지기 쉬운 상품을 운반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품으로 사용됐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골판지로 만든 랩이 등장했다. 종이 판지를 사용한 후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대신 골판지 포장지로 탄생시켜 포장 완충재로써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분해성 에어팩

에어팩은 스티로폼이나 버블 랩의

[사진 6] Vegware에서 판매 중인 제품 예시



: 투명 뚜껑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물성 수지인 PLA를 이용해 생산되며, 분해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이다.

[자료 : Vegware]

또 다른 훌륭한 대체물로써 이용될 수 있다. 다양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자에 빈 공간을 채우거나 포장된 품목 주위에 쿠션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고(전분 이용) 최소한의 포장 이 가능하다. 또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며 생분해될 수도 있다.

④ 생분해성 용기

영국 에딘버러에 본사를 두고 있는 Vegware는 생분해성 용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컵, 식기류, 접시, 음식용기, 샌드위치 박스, 휴지, 빨대 등을 판매하며 모든 제품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드니, 홍콩, 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Ⅲ. 시사점

영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과 같은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25년 환경 계획을 통해 사용을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2042년까지 줄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슈퍼마켓에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통로를 만들 것을 장려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추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영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 플라스틱 프리 트렌드로 인한 소비자의 플라스틱 포장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유념하고, 친환경 및 플라스틱 프리 포장 등에 주목해 현지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닐봉지(Plastic Bag)를 사용했다가 수많은 불만을 접수한 영국의 대표 드럭스토어 부츠(Boots)는 2020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맥도날드도 유사한 불만 접수 후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할 이력이 있다. 향후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식품용기 등을 이용해 영국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